

교사 관찰·추천제를 활용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

최 호 성

경남대학교

박 후 휘

경남대학교 박사과정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김 일

경남대학교 박사과정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본 연구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활용되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와 월수입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변화된 선발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약 80%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찰·추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긍정집단)가 40.5%,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부정집단)가 32.3%,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학부모(미판단집단)가 27.2%로 나타났다. 둘째, 영재교육 대상자로 학생을 관찰하고 추천할 적임자로 영재교육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대해 응답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높았다. 그러나,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와 월수입에 따라 적임자는 누구인가와 적임자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정부의 사교육대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관찰·추천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사교육비 지출은 긍정집단에서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은 반면,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에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학부모 인식, 교사 관찰·추천제, 사교육, 교사 신뢰도

I. 연구의 필요성

2009년 6월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강화,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4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시제도 개선, 그리고 영재교육에 있어서 수혜자 확대를

교신저자: 박후휘(hoohwi@hanmail.net)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을 받았음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을 우선 적용할 지역을 선정하여 5,70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교사의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2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실시되는 교사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영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사도구와 영재교육 대상자 관찰·추천 매뉴얼(박승배, 2010; 서혜애, 2010)을 개발하였으며, 선발과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도 높은 영재 선발을 위해 GED (Gifted Education Database) 교사 추천 선발 시스템 개발하였고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은 매년 11월에서 2월 사이에 치러지는 1회성의 선발 시험을 통해 선발해 왔다(김명환, 2009). 각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개 3단계의 다단계 평가방식으로 일반적으로 1단계의 학업성취도,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의 영재성 검사, 행동관찰, 포트폴리오 등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2단계의 학문적성검사 등의 지필검사를 거쳐 3단계의 면접을 통하여 최종선발이 이루어졌으며, 대학부설의 영재교육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다단계 선발 방식으로 영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영재성이 부족하거나,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에 영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 본인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계층의 학생 그리고 미성취 또는 장애 영재 등은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박숙희, 2009; 최호성, 2010). 또한, 2단계의 지필검사를 위해 개발되는 검사도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민원의 소지가 적으나, 사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학습된 영재를 선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김미숙, 2008). Renzulli와 Reis (1985)는 비능률적인 영재선발은 영재교육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Baum (1994)은 영재 선발이 부정확할 경우 자원이 낭비되고 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 도입은 정부가 현재 지필평가 위주의 선발제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 수혜비율을 현재 0.59%에서 미국(1~15%)이나 이스라엘(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최호성, 2010).

그러나 교사의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사들은 모범적이고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거나, 교사에게 기쁨을 주는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부진이나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학생들이 추천에서 배제되거나, 계층이

나 문화적 편견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박선자, 최경희, 이현주, 2009; 서혜애, 박경희, 2007; 윤초희, 2007), 학교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부족(안순란, 2004; 송경순, 2004), 특목고나 대학입시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특수성(심재영, 정세환, 이길승, 2007; 신희선, 김선자, 박종욱, 2010), 그리고 경험적으로 영재의 판별이나 영재교육원 입학에 미치는 사교육의 영향(전미나, 2010)을 알고 있는 학부모의 높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영재 선발과정에서 교사들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며, 영재 선발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 교사 관찰·추천 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될 연구도 최근 들어 비로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류지영, 2010; 박민정, 전동렬, 2008; 신보미, 2010; 이인호, 한기순, 2009; 한기순,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그 취지에 맞도록 정착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 학부모들은 자녀를 관찰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로 추천하는데 있어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3. 학부모들은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으며,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에 따른 향후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4. 학부모들은 관찰·추천제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자녀가 선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재 판별

영재 판별은 현재 영재교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재는 전통적으로 영재로 간주한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talent)”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가지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아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뜻이다.

최호성(2009)은 이러한 영재의 판별은 일반 학습집단 속에서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 즉 영재를 구별해 내는 과정으로, 정해진 교육정원을 확정하여 학생의 능

력 순위에 따라 교육 수혜자를 제한하는 선발과는 구분 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시스템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특정 시기에 영재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인원수만큼 선발하며, 이는 비록 영재성이 부족하더라도 여건이 허용된다면 교육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재를 판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는 지능검사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 등의 표준화 검사도구, 교사, 학부모, 또래에 의한 지명을 위한 검사도구, SRBCSS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와 같은 행동특성 검사도구, 창의적 산출물 평가를 위한 검사도구 등이 활용되고 있다(최호성, 2010). 과거에는 지능지수나, 학업성취도 중심의 표준화 검사도구를 활용한 영재 판별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영재 판별의 경향은 조기에 판별하고, 그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영역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단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판별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영재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재판별의 목적은 영재를 일반 학생 집단속에서 구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나 영재성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영재 판별이나 교육 대상자 선발 양상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2. 관찰·추천도구의 특징과 한계

관찰·추천도구를 활용하는 선발과정은 Fox (1976)의 3단계 영재선발과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단계는 선별단계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가능한 많이 포함되도록 교사는 학업성취도, 흥미, 태도 등을 근거로 선별한다. 2단계는 변별단계로 교육학자나 심리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1단계에서 선발된 학생의 지능 검사, 창의성검사, 성취도 검사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통해 영역별로 선발하며, 3단계는 배치단계로 선발된 영재들을 적절한 영재프로그램에 배치하고 학습과정과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추천도구를 활용하는 영재선발의 원칙은 선발과정에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모든 학생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관찰·추천 도구는 간편형으로 전체학생들을 관찰하며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서혜애, 2010; 최호성, 2010).

영재 선발과정은 여러 가지 자료와 검사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영역의 영재성을 다양한 선발도구를 통해 다단계로 거치면서 다양한 관찰자가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관찰·추천도구는 관찰할 수 있는 학생들의 특징을 영재성, 창의성, 지적능력, 사회성, 리더십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찰척도, 설문조사, 자기보고, 창의적 산출물 등의 과정 중심 평가방법으로 교사, 동료학생, 또는 기타 전문가 등이 다양한 장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서혜애(2010)는 관찰자에 따른 관찰·추천의 특징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사에 의한 관찰·추천은 학생들의 지적능력, 학습양식, 사회·정서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하면 관찰시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학업성취도의 학생들에 대해 선입견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영재성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영재들은 복잡하고 수준 높은 과제를 수행할 때 영재성을 발휘하며, 단순하고 지루한 학습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특징을 발휘하기도 한다.

학부모에 의한 관찰·추천은 자녀의 성장시기별 나타나는 영재성의 특징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린 시절 나타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특징, 흥미, 열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높은 수준의 특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또래에 의한 관찰·추천은 또래들이 영재성이 있는 친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수업외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으나, 영재성을 나타내는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따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도 있으며, 친구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영재성을 숨기기도 하여 또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재의 자기지명은 영재들은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자기 지명 양식을 특별한 양식으로 제공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영재의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자신이 친구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다르게 보이기 싫어 자신을 지명하지 않기도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1월 3일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영재교육원 입학요강 설명회를 겸한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에 참여한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배포된 설문지 374매 중 분석 가능한 295매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부산시 5개 지역교육지원청별(15.3~25.8%)로 고루 분포하였으며, 어머니가 285명(96.6%), 아버지가 8명(2.7%), 기타 2명(0.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98명(33.2%)으로 현재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197명(66.8%)으로 이 중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139명(70.6%)이었다(<표 1> 참조).

< 표 1 > 최종 분석한 설문 응답자의 인적사항 (N=295)

구분	항목	빈도	%	구분	항목	빈도	%	
부모	아버지	8	2.7	자녀학년	초1~초3	98	33.2	
	어머니	285	96.6		초4	93	31.5	
	기타	2	0.7		초5	75	25.4	
					초6	29	9.8	
연령	~29세	5	1.7	월수입	~199만원	8	2.7	
	30~34세	7	2.4		200~299만원	46	15.6	
	35~39세	131	44.4		300~399만원	92	31.2	
	40~44세	117	39.7		400~499만원	59	20.0	
	45~49세	25	8.5		500만원~	85	28.8	
	50~54세	6	2.0		무응답	5	1.7	
	60세~	2	.7					
	무응답	2	.7					
부학력	고등학교졸	32	10.8	모학력	고등학교졸	49	16.6	
	전문대졸	40	13.6		전문대졸	48	16.3	
	대학교졸	176	59.7		대학교졸	161	54.6	
	석사졸	26	8.8		석사졸	20	6.8	
	박사졸	17	5.8		박사졸	5	1.7	
	무응답	4	1.4		무응답	12	4.0	

2. 연구도구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 응답자의 인적사항(7문항)과 영재교육 경험(3문항) 및 관찰·추천제에 의한 선발방식과 관련된 문항(10문항)으로 구조화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학 및 영재교육 전공자의 검토를 통해,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응답결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의견 차이와 가계 월수입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차이를 χ^2 검증을 통해 조사하였다.

< 표 2 > 설문지 구성내용

영역	설문지의 구성내용
인적사항 (7문항)	- 자녀와의 관계
	- 거주지역의 행정구역(시/도명, 군/구명)
	- 응답자의 연령대
	- 자녀의 학년
	- 아버지 학력
	- 어머니 학력
	- 가정의 월수입

영재교육 경험 (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재학 여부 - 현재 영재교육 수혜 영역(수학, 과학, 정보 등) - 영재교육 경력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에 대한 의견 (1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교사 관찰·추천제) 변화 인지 여부 -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 (긍정집단, 부정집단, 미판단집단) - 관찰·추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관찰·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영재교육 대상자 관찰·추천의 적임자 - 관찰·추천 결과에 대한 신뢰도 -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시 발생가능한 문제 -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한 사교육비 규모 - 향후 관찰·추천제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변화 - 교사 관찰·추천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미선발시 대처 방식

IV. 연구 결과

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 변화 인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기존의 지필평가 위주의 방식에서 교사에 의한 관찰·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235명(80.7%)의 학부모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3명(28.5%)은 이미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방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6명(19.3%)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재교육 대상자를 새로운 교사 관찰·추천제에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변화되는 선발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18명(40.5%),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94명(32.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9명(27.2%)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본 연구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설문에 대해 응답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을 “긍정집단”,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을 “부정집단”,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을 “미판단집단”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간 의견차이를 조사하였다.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학부모(83명) 중 새로운 선발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 295명 중 40명이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부모 43명이었다(<표 3> 참조).

< 표 3 > 교사 관찰·추천제로 선발방식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응답내용	긍정적 생각 (긍정집단)	부정적 생각 (부정집단)	잘 모르겠다 (미판단집단)	합계
예/이미 알고 있으며, 구체적 방식 이해	40(48.2)	29(34.9)	14(16.9)	83(28.5)
예/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알지 못함	54(35.5)	47(30.9)	51(33.6)	152(52.2)
아니오/들어본 적 없음	24(42.9)	18(32.1)	14(25.0)	56(19.3)
전체	118(40.5)	94(32.3)	79(27.2)	291(100)

2.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긍정적 이유 및 부정적 이유

변화된 선발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4> 참조). 새로운 선발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선발할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으며,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19.5%), 소외된 영재 선발 가능성(12.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의 공정성과 신뢰도(51.0%)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이해도에 따른 선발 유무의 결정(22.1%), 선발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개입(11.0%)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감소 혹은 증가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각각 8명(6.5%)과 5명(3.4%)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집단은 거의 응답을 하지 않은 반면, 긍정집단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118명 중 47명(39.8%)의 학부모가 응답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은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통한 영재교육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선발기준의 공정성과 신뢰도나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선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선발방식에 대한 긍정적 이유와 부정적 이유 (단위: 명(%))

	응답내용	긍정집단	부정집단	미판단집단	합계
긍정 이유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영재 선발 가능	55(55.6)	-	4(20.0)	59(48.0)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	17(17.2)	1(25.0)	6(30.0)	24(19.5)
	소외된 영재 (미성취, 저소득층, 농어촌) 선발 가능	9(9.1)	2(50.0)	4(20.0)	15(12.2)

	학업성취도 위주의 선발방식 탈피	12(12.1)	-	2(10.0)	14(11.4)
	영재교육관련 사교육비 감소	5(5.1)	1(25.0)	2(10.0)	8(6.5)
	기타	1(1.0)	-	2(10.0)	3(2.4)
	합계	99(100)	4(100)	20(100)	123(100)
	선발기준의 공정성/신뢰도	15(31.9)	48(63.2)	11(50.0)	74(51.0)
	교사의 이해도에 따른 선발 유무 결정	12(25.5)	13(17.1)	7(31.8)	33(22.1)
	선발과정에 일부 학부모 개입	9(19.1)	5(6.6)	2(9.1)	16(11.0)
부정 이유	영재성 입증 자료 준비 어려움	7(14.9)	3(3.9)	1(4.5)	11(7.6)
	영재교육관련 사교육비 증가	2(4.3)	2(2.6)	1(4.5)	5(3.4)
	기타	2(4.3)	5(6.6)	-	7(4.8)
	합계	47(100)	76(100)	22(100)	145(100)

3.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찰·추천제 대한 인식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 세 집단의 학부모들은 다른 문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문항(행정구역, 소속교육지원청, 나이, 자녀학년, 부모 학력)과 영재교육 경험과 관련한 문항(현재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재학 유무, 영재교육 영역이나 경력)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계의 월수입과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월소득이 300~399만원인 응답자가 91명(31.8%)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은 85명(29.7%), 그리고 400~499만원이 58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집단(37.4%)과 미판단집단(35.9%)은 월소득인 300~3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집단은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다.

<표 5> 가계 월소득에 따른 교사 관찰·추천제 선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단위: 명(%))

응답내용	~199만원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만원~	전체	χ^2 (df=8)
긍정집단	1(0.9)	20(17.4)	43(37.4)	25(21.7)	26(22.6)	115(100)	
부정집단	1(1.1)	9(9.7)	20(21.5)	22(23.7)	41(44.1)	93(100)	$\chi^2=28.54$
미판단집단	6(7.7)	15(19.2)	28(35.9)	11(14.1)	18(23.1)	78(100)	$p=.000$
전체	8(2.8)	44(15.4)	91(31.8)	58(20.3)	85(29.7)	286(100)	

4. 관찰·추천 적임자 및 적임자에 대한 신뢰도

영재교육 대상자로 학생을 관찰·추천하는데 있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와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6>에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긍정집단, 부정집단, 미판단집단)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관찰하고 추천하는데 있어 누구를 적임자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교육학이나 영재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적임자라는 응답이 85명(33.9%),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 76명(30.3%), 자녀의 담임교사 73명(29.1%)으로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적임자로 생각하는 학부모는 10명(4.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추천에 있어 적임자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는데, 긍정집단에서는 49명(50.0%)이 자녀의 담임교사가 적임자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에서는 각각 7명(8.3%)과 17명(24.6%)만이 담임교사를 적임자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에서는 교육학이나 영재교육관련 전공 교수가 적임자라는 응답이 45명(53.6%)과 23명(33.3%)으로 나타났으며,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 의한 관찰·추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비슷한 비율(27.6~32.1%)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의 월소득에 따라 관찰·추천에 대한 적임자에 대한 의견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 참조).

그러나 관찰·추천에 있어 적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녀를 관찰하고 영재성을 판별한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약 50%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집단은 96명(81.4%), 부정집단은 20명(21.3%), 그리고 미판단집단은 31명(39.2%)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월소득에 따른 적임자의 관찰·추천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은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증가(13.0~22.4%)하는 경향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이상의 결과에서,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영재교육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찰·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월소득이 높은 학부모들은 외부 전문가인 교수를 관찰·추천에 있어 적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임자에 의한 관찰·추천 결과에 대해서도 높지 않은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집단 간 관찰·추천 적임자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자녀 담임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	교육학/ 영재교육 전공 교수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사	학부모	기타	전체	χ^2 (df=10)
긍정집단	49(50.0)	4(4.1)	17(17.3)	27(27.6)	1(1.0)	-	98(100)	$\chi^2=51.80$ $p=.000$
부정집단	7(8.3)	1(1.2)	45(53.6)	27(32.1)	2(2.4)	2(2.4)	84(100)	
미판단집단	17(24.6)	5(7.2)	23(33.3)	22(31.9)	1(1.4)	1(1.4)	69(100)	
전체	73(29.1)	10(4.0)	85(33.9)	76(30.3)	4(1.6)	3(1.2)	251(100)	

<표 7>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찰·추천 책임자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자녀 담임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	교육학/ 영재교육 관련 교수	영재교육 관련 연수 이수교사	학부모	기타	전체	χ^2 (df=20)
~199만원	2(33.3)	1(16.7)	2(33.3)	1(16.7)	-	-	6(100)	$\chi^2=23.33$ $p=.273$
200~299만원	12(30.8)	2(5.1)	9(23.1)	16(41.0)	-	-	39(100)	
300~399만원	28(37.8)	2(2.7)	25(33.8)	18(24.3)	1(1.4)	-	74(100)	
400~499만원	15(27.8)	1(1.9)	17(31.5)	17(31.5)	3(5.6)	1(1.9)	54(100)	
500만원 ~	16(21.1)	4(5.3)	32(42.1)	22(28.9)	-	2(2.6)	76(100)	
전체	73(29.3)	10(4.0)	85(34.1)	74(29.7)	4(1.6)	3(1.2)	249(100)	

<표 8> 관찰·추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집단 간 책임자에 대한 영재성 판별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모르겠다	전체	χ^2 (df=4)
긍정집단	96(81.4)	2(1.7)	20(16.9)	118(100)	$\chi^2=105.23$ $p=.000$
부정집단	20(21.3)	38(40.4)	36(38.3)	94(100)	
미판단집단	31(39.2)	9(11.4)	39(49.4)	79(100)	
전체	147(50.5)	49(16.8)	95(32.6)	291(100)	

<표 9> 가계 월소득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영재성 판별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모르겠다	전체	χ^2 (df=8)
~199만원	3(37.5)	-	5(62.5)	8(100)	$\chi^2=16.58$ $p=.035$
200~299만원	22(47.8)	6(13.0)	18(39.1)	46(100)	
300~399만원	53(57.6)	14(15.2)	25(27.2)	92(100)	
400~499만원	36(61.0)	11(18.6)	12(20.3)	59(100)	
500만원 ~	32(37.6)	19(22.4)	34(40.0)	85(100)	
전체	146(50.3)	50(17.2)	94(32.4)	290(100)	

5. 교사 관찰·추천 선발 방식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교사의 관찰·추천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와 월소득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객관성 결여(56%)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과 같이 드러난 수행능력에 따른 선발(21.2%),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개입

(2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특히, 부정집단의 경우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객관성 결여라고 응답한 비율(70.9%)이 다른 두 집단(42.2%, 59.4%)에 비해 10%이상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긍정집단은 드러난 수행능력 중심 선발(31.4%)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은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개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2%와 20.3%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0> 참조). 이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긍정집단 학부모조차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발 유무가 결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월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조사하였을 때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조). 특히,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 응답자의 73.2%가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객관성 결여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드러난 수행능력 (학업성적 등) 중심 선발	교사의 주관적 판단/객관성 결여	선발에 학부모 개입	기타	전체	χ^2 (df=6)
긍정집단	32(31.4)	43(42.2)	25(24.5)	2(2.0)	102(100)	$\chi^2=19.37$ $p=.004$
부정집단	8(10.1)	56(70.9)	12(15.2)	3(3.8)	79(100)	
미판단집단	13(18.8)	41(59.4)	14(20.3)	1(1.4)	69(100)	
전체	53(21.2)	140(56.0)	51(20.4)	6(2.4)	250(100)	

<표 11> 월소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드러난 수행능력 (학업성적 등) 중심 선발	교사의 주관적 판단/객관성 결여	선발에 학부모 개입	기타	전체	χ^2 (df=12)
~199만원	1(12.5)	5(62.5)	2(25.0)	-	8(100)	$\chi^2=22.14$ $p=.036$
200~299만원	12(30.8)	18(46.2)	9(23.1)	-	39(100)	
300~399만원	18(23.1)	35(44.9)	22(28.2)	3(3.8)	78(100)	
400~499만원	14(26.9)	29(55.8)	9(17.3)	-	52(100)	
500만원~	8(11.3)	52(73.2)	8(11.3)	3(4.2)	71(100)	
전체	53(21.4)	139(56.0)	50(20.2)	6(2.4)	248(100)	

6. 교사 관찰·추천제에 따른 사교육비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더불어 향후 관찰·추천제의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에 대하여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였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한 사교육비는 월평균 10만원 미만인 134명(50.4%)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참조). 그러나, 관찰·추천제의 도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약 54%가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집단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26.8%)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20.5%)보다 다소 많았으며, 부정집단과 미판단 집단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42.6%와 32.9%로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4.3%와 10.5%보다 현저하게 많았다(<표 13> 참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도입하였지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월소득에 따라 현재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월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표 14> 참조), 관찰·추천제의 도입에 따라 향후 사교육비 지출의 증감에 대해서는 월소득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참조).

<표 12> 관찰·추천제 의견차에 따른 사교육비 월지출 현황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10만원	11~30만원	31~50만원	51만원~	전체	χ^2 (df=6)
긍정집단	59(55.7)	31(29.2)	8(7.5)	8(7.5)	106(100)	$\chi^2=6.05$ $p=.417$
부정집단	43(48.3)	31(34.8)	10(11.2)	5(5.6)	89(100)	
미판단집단	32(45.1)	20(28.2)	10(14.1)	9(12.7)	71(100)	
전체	134(50.4)	82(30.8)	28(10.5)	22(8.3)	266(100)	

<표 13> 관찰·추천제에 의견차에 따른 향후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의견 차이

응답내용	현재와 유사	현재보다 증가	현재보다 감소	전체	χ^2 (df=4)
긍정집단	59(52.7)	23(20.5)	30(26.8)	112(100)	$\chi^2=26.93$ $p=.000$
부정집단	50(53.2)	40(42.6)	4(4.3)	94(100)	
미판단집단	43(56.6)	25(32.9)	8(10.5)	76(100)	
전체	152(53.9)	88(31.2)	42(14.9)	282(100)	

<표 14> 월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월지출 현황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10만원	11~30만원	31~50만원	51만원~	전체	χ^2 (df=12)
~199만원	5(83.3)	1(16.7)	-	-	6(100)	$\chi^2=26.85$ $p=.008$
200~299만원	20(50.0)	14(35.0)	3(7.5)	3(7.5)	40(100)	
300~399만원	56(63.6)	22(25.0)	7(8.0)	3(3.4)	88(100)	
400~499만원	23(43.4)	20(37.7)	8(15.1)	2(3.8)	53(100)	
500만원~	28(35.4)	27(34.2)	10(12.7)	14(17.7)	79(100)	
전체	132(49.6)	84(31.6)	28(10.5)	22(8.3)	266(100)	

<표 15> 월소득에 따른 향후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의견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현재와 유사	현재보다 증가	현재보다 감소	전체	χ^2 (df=8)
~199만원	6(85.7)	1(14.3)	-	7(100)	$\chi^2=7.09$ $p=.527$
200~299만원	22(51.2)	15(34.9)	6(14.0)	43(100)	
300~399만원	52(56.5)	23(25.0)	17(18.5)	92(100)	
400~499만원	33(57.9)	18(31.6)	6(10.5)	57(100)	
500만원~	40(48.8)	29(35.4)	13(15.9)	82(100)	
전체	153(54.4)	86(30.6)	42(14.9)	281(100)	

7. 미선발시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해 자녀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세 집단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81명(28.7%)은 교사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85명(65.6%)은 선발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합당하다면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긍정집단의 경우 교사를 신뢰하므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48명(43.2%)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은 약 70%가 선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근거가 합당하다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선발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미선발시 대처 방법 차이 (단위: 명(%))

응답내용	교사신뢰/결과수용	근거자료 제시 요구/합당시 수용	결과 불신	전체	χ^2 (df=4)
긍정집단	48(43.2)	63(56.8)	-	111(100)	$\chi^2=41.86$ $p=.000$
부정집단	11(12.0)	67(72.8)	14(15.2)	92(100)	
미판단집단	22(27.8)	55(69.6)	2(2.5)	79(100)	
전체	81(28.7)	185(65.6)	16(5.7)	282(100)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부터 시범운영 되기 시작한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인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영재교육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 중 약 80%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83명(28.5%)으로, 이 중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부모는 40명(48.2%)이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영재 선발이 가능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이나, 선발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도,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혹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발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선발방식인 관찰·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긍정집단에서도 상당수의 학부모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설문이 실시된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임을 고려한다면, 변화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일반 학부모의 관심과 인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체적인 선발방식을 이해한 학부모들 중 약 50%에 해당하는 40명의 학부모들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직까지는 많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부모들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추천하는데 있어 적임자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집단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긍정집단은 관찰·추천의 적임자로서 학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녀의 담임교사(50.0%)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집단이나 미판단집단의 경우 교육학이나 영재교육을 전공한 교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6%와 33.3%였다. 그러나, 자녀의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있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재성이 판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학부모의 약 50%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집단은 81.4%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은 판별 결과에 대해 신뢰할 없다는 응답이 40.4%와 11.4%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찰·추천제에 의한 선발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이유인 선발기준의 공정성이나 교사의 이해도에 따라 선발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표 4> 참조), 관찰·추천제의 도입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로 지적한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객관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0> 참조). 가계 월소득에 따른 적임자에 대한 의견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재성 판별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비율(13.0~22.4%)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학부모들은 단지 교사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관찰·추천에 있어 적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학

생을 관찰하고 추천함에 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잘 파악할 수 있거나 교육학 전공 교수와 같은 전문가나,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셋째,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의 약 90%가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현재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계 월소득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관찰·추천제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 월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관찰·추천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라서는 긍정집단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26.8%)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증가할 것(20.5%)이라는 학부모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부정집단과 미판단집단은 증가할 것(42.6%, 32.9%)이라는 응답이 감소할 것(4.3%, 10.5%)이라는 의견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선발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하여 낮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관찰·추천제 선발 방식이 아직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개입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류지영, 2010)에서도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65.6%의 학부모들은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합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민원제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영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으로 영재에 대한 정의, 판별, 선발 등에 대해 아직까지 완벽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국가별,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가 되어 왔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재교육이 특목고 입학이나 대학입시와 연관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확대되고 공교육은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가계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등 과정에서 도입된 교사의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신입생 선발은 기존의 서열화 되고 계량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비인지적 영역까지 평가하고자 하는 질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다.

영재교육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 본질에 충실한 영재 판별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영재판별이나 선발에서

완벽한 방법은 없겠지만, 영재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 그 중 일부일 것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사의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식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추천교사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 부족, 평가방식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추천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매뉴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함께 평가자의 소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 확대는 영재교육이 이제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있어 장기간에 걸친 학생 관찰은 뛰어난 학생들 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숨어 있는 영재를 발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나 예비교사,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영재성이나 창의성, 그리고 영재교육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단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교육의 근본 목적과도 부합된다. 또한,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도 영재를 판별하고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므로, 선발 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우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교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학교나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게 진행되는 교육행정활동과 교사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뒤따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상호신뢰, 상호존중, 상호격려, 상호지지가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며, 교사는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숙정, 2005).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은 2009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0년을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확대 실시되기에 앞서,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발 이후 영재교육 대상자의 양적 성장이 아닌 교육 내용의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도자료.
- 김명환 (2009).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김미숙 (2008).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지영 (2010).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관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한국교육연구**, 27(2), 159-178.
- 박민정, 전동렬 (2008).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법으로써 교사 추천제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2), 111-119.
- 박선자, 최경희, 이현주 (2009). 교육청 영재교육원 과학 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119-137.
- 박숙희 (2009). 소의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8(3), 5-21.
- 박승배 (2010). **영재교육 관찰·추천 선발도구 매뉴얼**.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 서혜애 (2010). **영재교육대상자 관찰·추천 도구 매뉴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혜애, 박경희 (2007). 영재교육 교사연수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영재교육연구**, 17(3), 421-442.
- 송경순 (2004). **고등학생과 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신보미 (2010). 수학 영재 관찰·추천 도구의 개발과 모의 적용 사례 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31-59.
- 신희선, 김선자, 박종욱 (2010). 과학 관련 특목고에 진학한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 부모들의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인식 및 과학교육참여에 대한 분석. **과학영재교육**, 2(1), 27-43.
- 심재영, 정세환, 이길승 (2007). 국제과학올림픽아드 참가자의 진로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145-171.
- 안순란 (2004). **초등학생과 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윤초희 (2007). 언어영재 교사 전문성 신장의 현황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6(2), 37-64.
-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2005). **영재교육**. 서울: 박학사
- 이숙정 (2005). **교사신뢰척도 개발 및 교사신뢰와 학교효과 변인의 관계 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인호, 한기순 (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전미나 (2010). **사교육 경험이 영재판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최호성 (2009). **2009학년도 초등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직무연수 교재**. 부산: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 최호성 (2010). **영재성 판별도구의 개발과 적용**. 부산: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 Baum, S. (1994). Meeting the need of gifted/learning disabled students.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3(5), 6-16.
- Fox, L. H. (1976).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Models and methods. In D. P. Keating (Ed.), *Intellectual ta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Renzulli, J. S., & Reis, S. M. (1986). The enrichment triad/revolving door model: A school wid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oductivity. J. S. Renzulli (Ed.), *System and model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Abstract =

Parents' Recognitions and Attitudes on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Using Observation and Nomination by Teachers in Busan

Ho Seong Choe

Kyungnam University

Hoo Hwi Park

Kyungnam University · Busan Institute for Gifted Education & Promotion

Eel Kim

Kyungnam University · Busan Institute for Gifted Education & Promo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arents about the teachers' recommendation system through their observations to identify the gifted. We conducted surveys for parents who ha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analysed the results to find out about the differences among parents groups in terms of their monthly incomes and opinions on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for the gifted.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approx. 80%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e changes in the giftedness identification system. Also, 40.5% of the parents positively thought about the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positive group), whereas 32.3% of the parents showed their negative opinions about the system (negative group). There were also 27.2% of the parents who did not make their decisions (no-decision-making group). Second, most of the parents accepted that the teache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in gifted education should be the persons for observing and nominating gifted student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among the different monthly income groups of the parents in regards to who should be the person taking charge of recommending the gifted and how trustworthy this person could be. Third, the positive parents' group mostly expected that as the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is adopted, expenses for private education would decrease, whereas the negative group and no-decision-making group thought that the opposite result would occur. Thes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eachers' observ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to identify the gif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Gifted, Identification, Perception of parents, Observation and nomination by teachers, Private education, Trust to teachers

1차 원고접수: 2011년 5월 8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6월 6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6월 16일